

한국농어촌공사 조성명 공주지사장 취임

✎ 길상훈 기자 | ㉠ 승인 2022.01.13 09:29



한국농어촌공사 신임 공주지사장 조성명.

[충남일보 길상훈 기자]한국농어촌공사 신임 공주지사장에 조성명 지사장이 12일 취임했다.

조 지사장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공주고를 나와 충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. 지난 1992년 공사 입사 후 2017년 충남지역본부 기관관리부장을 시작으로 2019년 논산지사 지역개발부장, 2020년 부여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.

평소 그는 공사 이론과 실무를 겸한 현장중심의 경영철학이 꼼꼼하게 다져진 마인드가 많은 농업인들에게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한 현장 실무형 탁월성이

칭송을 받아왔다.

또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데 숨은 공로가 직원들에게 잔잔한 감동도 심어줬다.

조성명 농어촌공사 신임 공주시사장은 "공사가 농어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동반자로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추구해 이를 실천에 앞장서는 전사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"이며 "농어촌경제 발전 및 농업인들의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수자원 확보에도 눈높이 사업 추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최선을 모아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

길상훈 기자 kksh123@korea.com

저작권자 ©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